

리비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리비아

I. 일반개황

면적	1,760천 km ²	G D P	692억 달러(2008년)
인구	6.30백만 명(2008년)	1인당 GDP	10,979 달러(2008년)
정치체제	총인민회의에 권력집중	통화단위	Libyan Dinar
대외정책	친서방개방정책 전환중	환율(달러당)	1.20(2008년)

- 196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카다피(Qadhafi)국가 원수는 집권 후 ‘이슬람-사회주의’의 슬로건 하에 의회 및 정당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1인 지도체제를 유지하며 리비아 정치·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리비아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415억 배럴 수준으로,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약 3.4%(전 세계 8위, 아프리카 1위)를 점하고 있음. 또한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1조 3천억 입방미터로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0.7%(전 세계 23위, 아프리카 4위)를 점하고 있음.
- 석유부문이 전체 GDP의 79%, 정부 재정수입의 93% 및 총수출의 98%를 차지하는 등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가격 등락에 따라 국가경제의 변동 폭이 큼.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5.4	5.6	5.8	6.8	6.3
재정수지 / GDP	15.8	25.1	37.6	37.9	33.2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0	3.4	6.3	10.4

자료 : IFS, EIU

□ 원유 생산감축과 거래가 하락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 경제제재 해제 이후 리비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대규모 건설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2008년 리비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6.3%를 기록함. 그러나 2009년 들어 유가의 급격한 하락과 동시에 OPEC의 감산조치가 취해져 경제성장률은 3.5%에 불과할 전망이다.

□ 소비자 물가상승 압력 가중

- 곡물을 비롯한 상품의 국제거래가가 인상되는 추세 속에 오일머니의 유입에 따라 유동성이 증가하고 여기에 카다피 정부가 연료와 전기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면서 2008년 물가상승률은 10.4%를 기록함.
- 관세제도를 정비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 시행을 하는 한편 재정지출 규모를 축소, 시중 유동성이 감소되어 2009년 물가상승률은 8.6% 수준으로 다소 안정될 전망이다.

□ 재정수지 적자 반전 전망

- 고유가로 인해 재정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 2007년 GDP의 37.9%, 2008년 33.2% 수준에 달함. 그러나 2009년의 경우, 국제 원유가가 급격히 하락하여 재정수입 규모가 전년대비 54%급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GDP 대비 13.1%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낙후된 인프라 개선 등 재정지출이 필요한 분야가 산재해 2008년까지 10%를 상회하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 들어 유가 하락 및 석유 생산감축이 이어지며 재정수입규모가 줄어들고 또한 공공부문 임금 삭감 및 보조금 지급 축소가 예정되어 재정지출 규모가 전년대비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리비아 경제의 석유의존 심화

- 2006년 기준 리비아 석유부문의 경제기여도는 총수출의 98%, 정부 재정수입의 93%, 경상GDP의 79%를 차지, 석유에 극도로 편중된 경제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경제체제 해체 이후 석유부문은 더욱 더 급격히 증대, 석유부문이 2000년 GDP의 39%에서 2006년 79%로 증가함. 반면, 동기간 농업 및 제조업의 GDP 비중은 각각 5%, 8.1%에서 1.2% 및 2.2%로 축소됨. 최근의 고유가 추세로 인한 해외석유메이저 기업들의 투자 증대로 인해 리비아 경제의 석유 의존도는 더욱 더 심화될 전망이다.

□ 지지부진한 산업다각화 정책

- 산업인프라, 정보통신 및 관광업 부문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다각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고유가 분위기 속에 리비아 정부는 에너지부문 인프라 구축 및 개발에 더욱 전념, 산업다각화 추진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임. 특히 정부 소유의 농장 설립 등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자급자족형 농업체제 구축은 리비아 정부의 에너지 부문 집중 투자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해 현재 식료품 수요의 80%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리비아의 원유 추정 매장량은 415억 배럴로,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약 3.4%를 점하고 있음. 더욱이 현재 리비아 영토의 약 25%정도만 탐사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됨.

□ 본격적인 개발이 기대되는 천연가스

- 리비아의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은 1조 3천억 입방미터로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0.7%를 차지하고 있음. 단, 확인되지 않은 추가 매장량이 현재 발견된 규모의 2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2006년 리비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150억 입방미터 규모로 서부리비아가스계획(WLGP ; the West Libya Gas Project)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2030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은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특히, 리비아는 유럽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유럽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구축과 천연가스 개발 및 정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추진

- 전체 재정지출의 10%이상이 소요되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뿐만 아니라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상업 및 관광단지 개발 목적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 수도인 트리폴리 재개발 계획을 포함, 트리폴리 동쪽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돼 총 330억불 규모의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 건설부문은 리비아 GDP의 4%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세는 향후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난관에 봉착한 원유수익금 직접분배계획

- 2008년 9월, 카다피는 2009년부터 국가의 원유수익금을 국민에게 직접 분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따라서 2009년 기준, 320억 달러 규모의(국민 1인당 2만 3천달러 규모) 수익금 분배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지난 2009년 3월 3일, 리비아 의회인 인민회의에서 적절한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반 이상이 반대하여 본 법안이 부결됨.

□ 지지부진한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

-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의 시행은 지지부진한 실정임. 카다피는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의 3분의 1일에 해당하는 400,000명 규모의 구조조정과 일인 당 42,000불 규모의 기업 설립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리비아의 정책추진 사례를 고려할 때 카타피의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이 착실히 수행될지의 여부는 미지수임.
-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2008년 경제자유도지수에 따르면 리비아는 2007년에 비해 3.2%포인트 상승한 38.7%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154위로 짐바브웨, 쿠바 및 북한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

음. 향후 민간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경제정책 개혁 없이는 순위상승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경 상 수 지	4,616	14,945	22,170	23,228	32,954
경 상 수 지 / GDP	14.5	34.9	42.5	43.1	47.6
상 품 수 지	8,657	17,675	24,254	25,386	35,116
수 출	17,425	28,849	37,473	44,967	60,257
수 입	8,768	11,174	13,219	17,581	25,141
외 환 보 유 액	24,336	38,235	57,907	77,898	90,715
총 외 채 잔 액	4,132	4,267	4,492	4,942	6,047
총 외 채 잔 액 / GDP	13.0	10.0	8.6	9.2	8.7
D . S . R .	4.4	3.1	2.7	2.5	1.8

자료 : IFS, EIU

□ 경상수지 적자 반전

- 2008년, 고유가로 인해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40%가량 증가하였으나 2009년의 경우 유가의 급격한 하락과 OPEC의 감산조치로 인해 2005년 수준인 226억불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경기회복과 함께 2010년에는 수출이 다소 회복하여 308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대규모 자본투자가 진행되고 소비재 수요 증가로 인해 2008년 수입규모 또한 40%가량 증대되어 251억불의 상품수입을 기록함. 2009년에는 사회투자활동의 위축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상품수입이 236억불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품수

출이 대폭 감소, 경상수지는 적자로 반전되어 2009년 10억불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 상황 양호

- D.S.R.이 5%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외채/총수출 및 총외채/GDP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외채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대외지급능력 또한 국제 원유거래가 상승 및 증산으로 인한 외환보유고 증가로 개선되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사회 안정

□ 카다피(Qadhafi) 일인 지도체제

- 196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카다피(Qadhafi)국가 원수는 집권 이후 ‘이슬람-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경제 전반의 국유화를 추진하였으며 의회 및 정당 제도를 인정치 않고 일인지도체제를 유지하며 리비아 정치·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높은 실업률

- 리비아의 실업률은 최소 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의 수치는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됨. 리비아는 고급기술을 요하는 직군과 자국민이 꺼려하는 일을 해외 고급 및 숙련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음. 현재 리비아 내 백만 명 상당의 해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리비아 국민들의 해외 노동자에 대한 반감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음.

□ 강력한 통제로 사회 불안 가능성은 낮음

- 경찰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 유지로 타 중동국가에 비해 범죄, 테러의 위협은 물론 시위 등의 사회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음.

2. 국제관계

□ UN의 경제제재 해제 후 유럽국가들과의 경제교류 활성화

- 1988년 미국 팬암기의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 폭발과 89년 프랑스 UTA기 폭발사건에 리비아가 연루했다는 혐의로 미국, 영국 및 프랑스 3국 주도로 UN의 경제제재가 시행되었으나 1999년 리비아가 테러 용의자를 UN에 인도함에 따라 경제제재가 해제됨.
- 유럽 국가들은 UN의 경제제재 해제 후 리비아산 원유의 높은 품질 및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리비아를 상대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으며 2006년 기준, 리비아의 총수출 중 이탈리아가 37.4%, 독일이 14.8% 및 스페인이 7.8%를 차지하는 등 50%이상이 유럽과의 교역에서 발생함.

□ WMD 폐기를 통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

- 미국은 1996년 이란과 리비아의 에너지 부문에 자국 기업의 투자를 규제하는 ‘이란 및 리비아 제재법’ (ILSA, 일명 D’Amato Act) 을 제정하고 1999년 UN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에도 D’Amato Act 를 해제하지 않았음.
-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던 미국과 리비아의 관계는 2003년 12월 카다피의 대량살상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폐기

선언과 2004년 4월 미국의 D'Amato Act 해지 선언 및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로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비치다 2006년 6월 미국이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수도 트리폴리에 미국 대사관을 개설하는 등 양국 외교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발표함.

- 2003년, 리비아의 대미 수출비중은 D'Amato Act가 해제되기 전 전 무하다 엑슨모빌을 비롯한 미국 석유메이저 기업의 본격 진출로 인해 2006년 현재 미국은 이태리, 독일, 스페인에 이어 4대 교역국으로 급부상함.

□ 아랍 국가들과 불편한 관계 속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유대 강화 노력 중

-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지역 아랍권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UN의 리비아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아랍 국가들이 아무런 항의조치를 취하지 않자 카타피는 유대강화 노력을 청산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통합 및 역내 자국 지위 강화에 노력함.

□ 2009년, 1년 임기의 아프리카연합(AU) 의장에 당선

- 2009년 2월 2일, 카다피는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AU 정상회의에서 키크웨테 탄자니아 대통령의 후임 의장으로 선출돼 앞으로 1년간 AU를 이끌게 됨. 카다피는 취임연설에서 '아프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frica)' 창설에 매진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나 지역 내 정치·경제 패권국 지위를 다투고 있는 남아공 및 나이지리아의 회의적인 시각에 직면할 전망이다.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 태도

□ 외채 부담은 낮은 수준

- 풍부한 오일머니 및 20여 년간 지속된 경제제재 조치에 따라 리비아는 외채규모는 미미한 수준임. 2008년 말 리비아의 총 외채규모는 60억불 규모로 총 GDP의 8.7%에 불과함. 그러나 UN 및 미국의 경제제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후 대규모 에너지 부문 투자 및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리비아의 외채규모는 향후 점증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 상환 태도 개선

- 불량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여 온 리비아는 1999년 UN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대외채무 원리금 상환금액을 늘리는 등 외채 상환에 있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공공재정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일관성 없는 외채상환태도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OECD는 동국을 외채상환부문에 있어 'high risk'로 분류하고 있음.
- 리비아의 high risk 등급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은은 2006년 3월 리비아의 향후 성장가능성을 토대로 21년 만에 수출신용보증업무를 재개함.

2. 국제시장 평가

- S&P를 비롯한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의 평가실적은 없음.

□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

- OECD : 6등급('06.10) → 6등급('07.10)
- Euromoney : 169/185('08.3) → 117/185('09.3)
- ICRG : 24/140('08.4) → 22/140('08.11)
- I.I. : 75/174('08.3) → 75/177('08.9)

□ 주요 ECA 지원태도

- US EXIM : 공공부문 인수 가능
-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HERMES :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80. 12. 29 (북한과는 1974. 1. 23 수교)

□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 협정(99), 투자증진보호협정(06)

□ 2008년 우리나라의 리비아 대상 수출 및 수입은 각각 821백만 불, 12백만 불 수준임.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기계류 및 무선통신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 품은 어류를 비롯한 수산물임.

□ 해외직접투자(2008년 12월 말 현재, 총 투자기준): 12건 254백만 불

V. 종합 의견

- 아프리카 최대 자원부국인 리비아는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국제유가 상승, 원유 생산 증대를 바탕으로 2003년 이래 6%대의 고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유가 하락과 생산 감축으로 인해 2009년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 리비아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415억 배럴 수준으로,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약 3.4%(전 세계 8위, 아프리카 1위)를 점하고 있음. 또한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1조 3천억 입방미터로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0.7%(전 세계 23위, 아프리카 4위)를 점하고 있음.
- 카다피(Qadhafi)는 리비아 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사회주의식 통제경제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97년 해외투자촉진법의 제정 및 2002년 동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2001년 2002년 각각 IMF 조사단을 맞이하여 거시경제 전반에 걸친 협의를 거쳐 WTO가입추진, 공기업 특혜철폐 및 사기업 진작 등 경제자유화 시책을 가속화 하고 있어 개방사회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음.
- 지나친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와 비대한 공공부문으로 인해 발전이 더딘 민간경제, 미숙한 공공재정 운영은 향후 개선해야할 과제로 남아있음.